

PCB업계 "올 매출 5조 돌파"

'평균 30%대 성장' 공격적 경영계획 수립

국내 인쇄회로기판(PCB) 업계가 올해 전년 대비 30% 이상 늘어난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수립, 사상 처음으로 PCB 연 매출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

부품산업의 대표 격인 PCB 업계의 이 같은 성장 예상치는 부품은 물론 세트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이 강해 올 IT경기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.

23일 민간 연구기관인 PSP연구소(소장 장동규)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33개 주요 PCB업체의 올해 매출 목표 총액은 지난해(3조 8,004억원)보다 32% 가량 늘어난 총 5조31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전기·LG전자·인터플렉스 등 1~5위권 업체는 평균 30%대 성장을 예상한데 비해 심텍·에스아이플렉스·이수페타시스 등 6~10위권 중견업체는 40%대의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.

특히 에스아이플렉스·산양전기·뉴플렉스·BH플렉스 등 연성기판(FPC) 업체들은 평균 50% 이상의 신장률을 기대하고 있어 당분간 양·단면 및 멀티 제품을 중심으로 한 FPC 시장이 국내 PCB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견됐다.

삼성전기는 PCB 부문에서만 지난해 8,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1조원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.

이를 위해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경·연성(SEMBrid) 및 CSP기판 분야에 총 1,87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고부가가치 기판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.

LG전자는 지난해 매출(4,500억원)보다 30% 이상 늘어난 6,000억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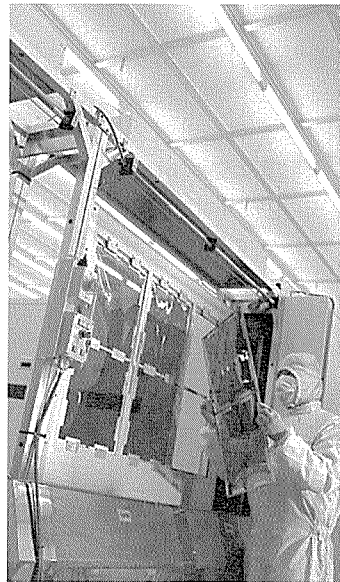
이 회사는 네오맨해튼범프인터커넥션 (NMBI:Neo Manhattan Bump Interconnection)이나 롤투롤과 같은 첨단 공법을 앞세워 차세대 PCB 공정기술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.

올해부터 일본 현지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에스아이플렉스는 전년 대비 60% 가까이 늘어난 2,4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위해 일본 도쿄에 영업사무소를 개설하고 소니·마쓰시타·히타치·산요 등 현지 거래처를 다변화하기로 했다.

뉴플렉스와 BH플렉스 역시 전년 대비 100%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 BH플렉스는 오는 4월부터 중국 후이저우에 6,000여 평 규모의 FPC 생산설비를 본격 가동해 현지에서만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.



올 PCB업체 예상 매출

삼성전기	1조500(19%)
LG전자	6,000(33%)
인터플렉스	4,052(16%)
대덕전자	3,500(17%)
영풍	3,200(28%)
대덕GDS	3,000(25%)
에스아이플렉스	2,400(60%)
코리아서킷	2,150(30%)
심텍	2,100(40%)
이수페타시스	2,100(31%)
코스모빅	1,500(36%)
산양전기	1,500(50%)
뉴플렉스	1,250(150%)
원큐리스	1,000(67%)
DAP	940(34%)

단위:억원 ※()안은 작년대비 증가율
자료:PSP연구소

또 FPC 1위 업체 인터플렉스는 4,000억원대를, 대덕전자와 대덕GDS는 각각 3,500억원과 3,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.

장동규 PSP연구소장은 "PCB 업계는 가격 하락과 중국·대만 등 후발 국가들의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트레이트, 카메라폰용 PCB, 멀티 FPC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올해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(출처: 전자신문)

부품산업의 대표 격인 PCB 업계의 이 같은 성장 예상치는 부품은 물론 세트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이 강해 올 IT경기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.